중1 자유학기제 점수가 고입에 반영되나요?

중학교 1학년인 아이가 1학기 자유학기제 중입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출결, 봉사 외에 각종 교내대회, 과목별 시간의 활동 점수도 학생부에 올려준다고 하셨다는데요. 정확히 중1 자유학기제의 어떤 부분이 고입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고 입학 시 출결 점수만 반영 특목·자사고는 면접에서 활용

자유학기제는 정기고사가 없고, 내신 성적 역시 따로 내지 않는 학기입니다. 해당 학기 학생부와 성적표에는 수업 내 활동 중 학생의 성장·성향 등이 서술형으로 기록되죠. 일반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과 출결 등을 활용해 평준화 지역은 관내,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별로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자유학기제 관련 기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학교가 별도로 입시를 진행하는 특목·자사고는 면접에서 1학기 자유학기제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에 기반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이죠. 이때 학교별 평가 기준이 다른 만큼 진학 희망 고교의 고입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인 외대부고의 입학홍보부장 조경호 교사는 "자유학기제는 교과 성적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활동을 중시한다. 관심 분야나 희망 전공이 뚜렷하다면, 이를 드러낼 만한 활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합니다.

단, 반드시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 교사는 "자신의 흥미와 성향에 맞는 활동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권장한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인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More tip
서울시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sfree.sen.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자유학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재 박선영 리포터 hena20@naeil.com **도움말** 조경호 교사(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입학홍보부장)

봉사 활동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중1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기초에 교내에서 봉사 활동을 할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많아 아이는 뽑히지 못했다고 해요. 외부 봉사 활동을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인정하는 봉사 활동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 봉사 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확인 해외 봉사·영리기관 활동은 인정 안 돼

봉사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속하는 비교과 활동인데요. 교과 점수에 비해 비중과 변별력은 적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교 진학 시 평가 요소로 쓰입니다. 기준 시간에 미달하면 감점을 당하는 식이죠.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봉사 활동 연간 기준 시수가 코로나 이전인 연간 20시간으로 급증한 지역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봉사 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
▶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www.vms.or.kr
▶ 청소년자원봉사(DOVOL): www.youth.go.kr
☞ 학생 봉사 활동 1일 최대 인정 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참고로 중학교 봉사 활동은 크게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 봉사 활동'과 '개인 봉사 활동'으로 나뉩니다. 급식 도우미나 도서 정리 같은 수업 시간 외 봉사 활동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도, '학교 대청소'나 '캠페인' 같은 단체 활동을 통해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봉사 활동이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봉사 활동 실적 연계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 봉사 활동 계획서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바로 나이스(NEIS)로 연계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경기 지도중 문은혜 교사는 "활동비나 후원금 등 학생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활동이나 스펙 쌓기가 의심되는 해외 봉사 실적 등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도움말** 문은혜 교사(경기 지도중학교)